

회계학 공부방법론

(1차 객관식 회계학을 중심으로)

1. 회계학 과목과 공부순서

- (1) 재 무 회 계(30문제) : 회계원리 ⇒ 중급회계 ⇒ 고급회계
- (2) 원가관리회계(10문제)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회계원리부터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회계의 기본원리 등을 모르면 그 다음 과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계원리를 공부한 이후에는 중급회계 또는 원가관리회계 중 어느 것을 먼저 공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고급회계는 출제빈도가 극히 저조한 부분이므로 아예 공부범위에서 삭제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2. 회계학의 특징

(1) 휘발성이 너무 강한 과목이다.

회계를 처음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여도 남는게 없다라는 느낌을 주는 과목입니다. 뒷부분을 공부할 때 앞부분이 생각나지 않고 전에 풀렸던 문제도 나중에 다시 풀려고 할 때 잘 풀리지 않는 과목이 바로 회계입니다.

이는 회계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과목자체 때문의 현상이지 수험생 여러분의 공부노력 등이 부족해서 나타나는게 아니므로 초기 공부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계는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반복과 숙달 등을 필요로 하고 있구요, 회계가 어떠한 과목인지를 알려면 최소한 3회독 이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회계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5회독 이상(수험생 각자 노력 등에 의해 회독수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임니다)을 공부해 주셔야 하는 과목입니다.

(2) 시간적인 면에서 불리한 과목이다.

다른 과목과는 휘발성도 강하고 반복숙달과정도 필요로 하고 숫자와 관련된 과목이다 보니 시간투자를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즉, 회계는 빨리 공부하면 할수록 유리한 과목입니다.

자신없는 과목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시간에 쫓기어 비효율적인 공부방법(면과락 작전 등등)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험당일 다른 과목과는 달리 한 문제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과목이므로 회계원리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3) 과정이 서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목이다.

회계는 회계원리부터 시작하여 중급회계 및 객관식 문제집까지 과정이 서로 확대해 가면서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구성된 과목입니다.

따라서 회계원리 내용을 모르면 그 내용과 이어지는 중급회계 및 객관식 문제집도 이해하고 풀기가 어렵구요, 중급회계 앞부분 내용이 뒤의 내용까지 이어지고 객관식 문제집까지 확대해 가면서 이어지므로 앞의 내용을 모르면 뒷부분도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역으로 회계원리 및 중급회계 앞부분을 철저히 이해하고 풀 수 있다면 뒷부분과 객관식 문제집도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뒷부분 공부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관련된 앞부분이나 회계원리를 다시 복습해 주길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은 복식부기의 기본구조와 원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구요, 실제 기출문제 등을 분석해보면 회계원리 및 중급회계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섞인 상태, 즉 혼합된 상태에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4) 감정평가사·관세사 및 보험계리사 회계학은 1차에서만 출제된다.

감정평가사·관세사 및 보험계리사 회계학은 1차 시험에서만 출제되므로 회계학원에서 강의하거나 공부하는 방법하고는 약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감정평가사 민법을 공부하기 위하여 사시학원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과 관세사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하기 위하여 회계학원에서 이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즉, 회계학은 기본원리를 철저히 이해하여야 하는 과목이지만 거의 모든 범위에 걸쳐 이렇게 공부하면 수험기간을 더 연장하여야 하며(1차 시험은 1년 안에 합격해야 하겠지요^^) 회계학을 거의 전공수준으로 공부하여야 이해가 되는 부분도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순수 이론측면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알려고 노력하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3. 회계학 공부방법론

1단계 : 기본원리를 철저히 이해하여야 한다.

복식부기의 기본구조부터 시작하여 왜 그렇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등을 철저히 이해하여야 객관식 문제를 이해하고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위주로만 공부하면 숫자가 달라지거나 약간 변형된 문제 및 응용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2단계 : 공부한 내용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복습을 하여야 합니다.

회계는 예습이 전혀 도움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습을 하여야 하며,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신속히 복습을 해야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는 절대 눈으로 공부하면 안됩니다. 손을 부지런히 움직인 것만큼 실력과 점수가 높아집니다.(회계처리 및 계산기 조작 등)

3단계 : 문제푸는 기법도 동시에 터득해야 한다.

회계는 시간 내에 한 문제를 풀기가 매우 어려운 과목이므로 회계원리부터 기본원리를 철저히 이해함과 동시에 문제푸는 기법(속전속결법 : 직독직풀법, 직독직산법, T-form, 시간흐름표 이용 등등...)도 터득하고 활용을 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기본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푸는 기법만 터득하면 문제가 약간 변형되거나 응용이 되면 문제 자체도 이해도 못하고 문제 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푸는 기법도 기본서때부터 터득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평상시 공부할 때 1분안에 문제푸는 연습을 해주어야 실제 시험장에서는 1분 30초나 2분안에 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서때부터 시간적인 면을 염두에 두면서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공부만을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학교공부 스타일)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주길 바랍니다.

4단계 : 자립 단계

실제 시험당일 주인공은 강사가 아니고 바로 수험생 여러분들입니다.

즉, 시험장에서 회계문제를 푸는 사람은 강사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시험 직전 약 한달 사이동안은 강사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시험 직전에도 강사의 친절함 강의(?)에 의존하면 시험당일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실전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동안 회계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한 분들이거나 공부시작을 늦게 하신 분들입니다. 즉 이런 분들이 시험 직전에도 강사의 강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 직전 약 한달 동안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혼자서 정리하거나 모의고사를 통하여 문제를 스스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시기입니다.

5단계 : 시험당일 시험장에서는 아래 두 가지를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1) 2교시 두 과목간의 시간안배

회계학은 최소한 50분 이상을 투자해 주길 바랍니다.

(2) 감정조절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아는 문제인데 잘 풀리지 않을 때, 예상한 난이도보다 높게 출제되었을 때 등에서 감정조절이 실패하면 회계는 평상시 실력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는 문제도 실수에 의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감정조절에 실패하면 안됩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

고수는 아는 문제만 풀고 하수는 모르는 문제에 집착하고 40문제를 다 건드리는 유형!!!

그리고 실전 전략!!! I-II-III 전법!!!

6단계 : 앞의 모든 단계를 무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4. 수험생의 시행착오 유형

- (1) 회계의 기본원리를 소홀히 함
- (2) 기본서 회독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문제위주로만 공부하려고 함
- (3) 복습을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함(휘발성이 강하므로 그사이 다 날라감)
- (4) 여러 가지 개인 사정(학교 시험, 다른 과목 공부,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 오랜 동안 회계공부를 쉽
- (5) 뒷부분 공부시 관련된 앞부분을 공부하지 않음
- (6) 등차생들은 기본서는 다시 공부하지 않고 문제위주(문제집 또는 모의고사 등만)로만 공부하려고 함
- (7) 문제 풀 때 해답 및 해설에 너무 의존하고자 함
- (8) 눈으로만 공부하려고 함

5. 1차 회계학을 회계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회계학을 광범위하고 상당한 수준까지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은 바로 회계학원입니다. 이는 저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계학이 1차 시험에서만 출제되고 있는 자격증까지도 과연 회계학원에서 공부하는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회계학을 고득점하거나 1차 시험만 1년 이상을 목표로 잡고 공부하는 수험생분들은 회계학원에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수험생분들도 회계학하면 회계학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회계학이 1차에서만 출제되고 2차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다고 할 때 과연 교재나 강의가 지금처럼 똑같은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출제범위나 난이도면에서 현재보다 분명히 좁아지거나 감소할 것입니다.

1차에서만 회계학이 출제되는 자격증 중 연혁이 오래된 자격증이 감정평가사 시험(1990년 제1회 시험)인데요, 지금까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1차 회계학보다 범위가 더 넓거나 난이도가 높게 출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1차 회계학을 회계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input 과 output 면에서 살펴보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1) 출제범위면에서 광범위합니다.

이는 회계사용 교재 분량만 보아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구요, 특정 챕터내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부분까지 출제되므로 이러한 부분도 교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시험에서는 이 정도까지의 난이도는 출제되지 않으므로 굳이 회계사용 교재나 강의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대한민국 회계학 문제 중 최고의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ICPA와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사용 교재나 강의도 여기까지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험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

또한 우리쪽은 1문제당 1분이 배정되지만 공인회계사 시험은 1문제당 1분 30초 정도가 배정되므로 문제길이나 난이도면에서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3) 1차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과락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회계학을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계실 것입니다. 회계학원에서 공부할 시간과 노력이라면 그 부분을 2차 과목에 투자하는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득점이 아닌 목표점수를 확보하는 것도 회계학은 쉽지 않지요^^ 열공한 수험생분들만 달성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4) 회계학원에서 공부한 수험생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40문제를 다 풀지 못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40문제를 다 풀지 못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구요, 회계학원에서 공부한 수험생도 마찬가지로일 것입니다. 20개 내지 30개 사이에서 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정도는 회계학원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5) 교재비(교재가 많음)나 수강료면(강의수가 많음)에서도 일반적으로 회계학원이 더 부담됩니다.

(6) 회계학원에서의 회계학 강의는 1차 보다는 주로 2차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합니다.

실제 모학원의 유명한 회계사분 강의 중, 이 부분은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끼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2차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실제 1차 시험에서는 출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7) 회계학원의 강의를 이해하고 반복숙달하려면 시간투자를 더 많이 해야만 수업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과 관련된 학원에서 회계학을 공부하시는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